

투데이

‘5월 광주’ 야권 통합 이끌까

호남 민주진보개혁 세력, 오늘 야 4당 대표 초청

5·18묘역 ‘역사의 문’서 정권창출 촉구 모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호남지역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야권연대·통합에 대한 요구가 5·18 광주민중항쟁 31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17일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에 따르면 호남지역 민주진보개혁 세력은 5·18 광주민중항쟁 31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역 내 ‘역사의 문’에서 민주당과 국민 참여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 4당 대표를 초청해 ‘민주진보정치세력 연대·연합과 정권창출을 촉구하는 모임’을 연다.

이날 모임은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주관하고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북시민협 ▲광주전남 진보연대 ▲광주·전남 여성단체 연합 ▲국민의 명령 ▲부동산당 ▲시민주권 ▲진보 대통합 시민회의 등이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이날 모임에서 야 4당 대표에게 야권 연대와 연합을 이루어 반드시 2012년 정권교체를 이를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야 4당이 각 당의 이기주의와 기득권, 당론과 정강에 집착하지 않고 내년 정권교체라는 큰 틀에서 각 당의 당론과 정강을 보강하는 변화와 혁신의 조치를 취해줄 것도 요구한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야 4당이 이달 내에 야권 연대·연합과 2012년 정권교체를 목표로 재야 진보세력을 포함하는 공동의 초당적 기구를 설치하고, 즉각적인

야권연대·연합 협상에 나설 것도 함께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야원 4당이 진정성 있는 치열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이를 까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와 연합의 정치에 대한 큰 합의를 이끌어 줄 것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야 4당 대표들은 진보진영 세력의 요청에 따라 환급하는 형식으로 야권연대와 통합에 대한 각 당의 기조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이홍길 상임대표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응징하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며 “우선 야 4당이 연대와 선거연합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통합을 할 것인지를 9월까지 정한 후 2012년 총선 전까지 절차와 과정,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는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야 4당 대표와 민주진보세력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45년만에 개방 무등산 정상 인터넷서 화제 만발

“정기적 개방” 요청 쇄도

45년만에 일반 시민에게 개방돼 2만여명의 인파가 몰린 무등산 정상 개방에 대해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만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사일 기지가 있는 천왕봉(해발 1187m)과 7m 아래인 지왕봉, 인왕봉을 일시 개방했다.

지난 1966년 군부대 주둔 이후 처음으로 개방된 무등산 정상에는 이날 2만여명의 등산객이 몰려 정오를 전후해 서석대에서 군부대까지 복지현상이 빚어졌고, 중며리재~장불재~부대를 잇는 수킬로미터가 등산객 행렬로 이어지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45년만에 무등산 정상을 밟아 본 등산객들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정상에 선 감동을 글과 사진으로 전하고 있다. 17일 현재 포털 사이트 인 네이버와 다음에는 무등산 정상 개방과 관련한 블로그가 각각 30~40개에 이르고 있다.

한 블로거는 “이제껏 많은 등산을 다녔어도 이렇게 많은 등산객이 몰린



지난 14일, 45년만에 개방된 무등산 정상을 찾은 등산객들이 지왕봉의 주상 절리대를 배경삼아 점심을 먹고 있다.
/나영주기자 mja@kwangju.co.kr

것은 처음이고, 말그대로 인간띠”라며 “웅장한 지왕봉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고 적었다. 또 다른 블로거는 “자연이 주는 위대함보다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실에 마음 한 가득 슬픔이 밀려왔지만 이렇게 나마 무등산의 정상을 볼 수 있어 눈물 나게 고마웠다”며 “이번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최소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정상을 광주시민들에게

개방해 빛고을의 균원지이자 생명의 시발점인 무등산 정상을 모두 한 번씩 밟아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희진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시민들이 무등산 정상 개방에 이렇게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올 가을께 다시 한번 정상을 개방하는 문제를 군과 협의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경매투자

- 공동투자 및 자본주 모집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지상권등 투수물건만 투자
- 김정가 50%미만 물건만 투자
- 매수 입찰대리 일체 사절

온천경매연구소
H.011-605-5000 ☎ 525-500
광주광역시 북광주 우.사58호
E-mail : csg5000@hanmail.net

공무원 특별자금

- 무조회 기록서비스 • 500만 원 정부보증 청탁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 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 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1.2%~3%

국민금8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

자사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20번지
23-154, 23-216, 23-218, 23-272, 23-283, 23-284, 73-38 (계 4,787㎡)

용도 일반상업지역

현 상태 인도 조건(지하 6층 구조물 존재)

문의 02)6908-7021, 7024 (인사총무팀)

※참조: 공시지가 ₩1,130,000~ ₩1,320,000/㎡

신원종합개발(주) www.swc.co.kr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기대출 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 가능, 본인선택)
- 시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시세 -80%+0
(60%)
금리: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 -80%
금리: 연 5.9%~

★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순천 송광사·선암사·순천만

‘미술랑 가이드’ ★★★ 최고점

순천의 송광사·선암사·순천만이 세계적인 여행가이드북 ‘미술랑 가이드 한국 편’이 평가한 110곳의 국내 여행지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17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에서 첫 출간된 미술랑 가이드 한국판은 국내 문화·역사유적지, 관광지 등 110곳을 소개하면서 23곳의 여행지에 대해 최고 점수인 5개를 줬다.

세계의 맛집에 별점을 매기는 미술랑 가이드가 한국을 다루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편의 경우 식당을 소개하지만 별점을 주지 않고 여행지에 별점을 주는 ‘그린 가이드’다. 미술랑 ‘그린 가이드’는 ‘로리풀 래피’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여행가이드로, 52개국에서 발간되며 판매 부수가 150만부에 달한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 선암사·송광사·순천만에 대해 별 세 개의 최고 점수를 매겼다. 이번 평가를 위해 미술랑 가이드 취재진은 지난 해 하반기 방한, 테마별 국내 여행지를 직접 답사했다.

미술랑 가이드는 1900년 타이어 회사 ‘미술랑(미쉐린)’이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여행정보를 담아 발간한 게 시초로, 여행 정보를 중심으로 한 ‘그린 시리즈’와 식당만 전문으로 다른 ‘레드 시리즈’로 나뉜다.

한편, 미술랑 가이드가 별 세 개를 출판 국내 여행지는 순천 3곳 외에 ▲경복궁 ▲북촌 ▲창덕궁 ▲국립종 양박물관 ▲수원화성 ▲해인사 ▲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국립경주박물관 ▲불국사 ▲석굴암 등이다. /김지자기자 dok2000@

지경부 1차관 윤상직·국토부 1차관 한만희씨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지식경제부 1차관에 윤상직 청와대 지경비서관, 국토부 김정관 지경부 예산담당관, 국토부 해양부 1차관에 한만희 행정중심복합도시 시각설정장을 내정했다. 또 행정복합도시 시각설정장을 내정했다. 김 지경2차관 내정자는 52·충남 예산)는 용산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옛 총무처를 거쳐 대전 행정부시장, 행안부 조직실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과를 졸업한 뒤 옛 동력자원부를 거쳐 지경부 예산담당관을 지냈다.

한 국토1차관 내정자는 55·대전)는 대전과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주택도시지질장을 거친 주택 전문가다. 최 행정중심복합도시 시각설정장 내정자는 박성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충남 행정부지사, 행안부 인사실장을 거쳤다. 박 소청심사위원장 내정자는 52·충남 예산)는 용산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옛 총무처를 거쳐 대전 행정부시장, 행안부 조직실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긴급 아니면 119 요청 거절

앞으로는 119구조대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할 수 있도록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은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조대를 부르면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 요청을 거절한 뒤 확인 인서를 주게 된다. 취객이 집에 터워다 달라거나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 터박상이나 엘상, 칠과상 환자 중에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종노위는 결정문에서 “신안군이 6급

공무원 전체가 노조 기관대상이 아니라 고판단 노조 탈퇴를 회유하거나 종용 또는 강요한 것은 지배 계약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6급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유지됐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업무총괄자가 아닌 일반 6급 공무원의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전남지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신안군이 제기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종노위는 결정문에서 “신안군이 6급 공무원 전체가 노조 기관대상이 아니라 고판단 노조 탈퇴를 회유하거나 종용 또는 강요한 것은 지배 계약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이행하고, 도시에 대한 권리로 증진함으로써 인권도시의 비전을 현장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시민위원회, 시·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와 같은 시민과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실현성 있는 제도를 개발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인권도시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유네스코의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FA) : 다카 행동계획’,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10-13)’,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과 기타 적절한 국제기준과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인권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유네스코의 인증차별반대도시연합과 유엔 글로벌 경제·교육·문화 협력체계에 기여함으로써 인권도시의 비전에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국내적 국제적 연대를 강화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도시에서의 인권을 위한 지구 협정-의제’를 비준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광주시가 WHRCF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인권도시의 전세계적 발전을 보다 더 촉진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광주 인권도시 선언문 (요약)

시장과 ‘인권도시’ 대표단, 유엔 인권 전문가, 시민단체, 인권관련 NGO 등 국내외 100여명의 ‘2011 국제 인권도시 네트워크’ 참가자들은 광주시와 5·18기념제단의 초청으로 다양한 인권도시 건설의 경험을 시민참여와 인권교육의 관점으로 공유하고 토론했습니다.

인권도시는 그 실천적인 차원에 있어 모든 주민과 거주민,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소수인 모든 소수자 그룹들이 인종, 성별, 피부색,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차별금지의 원칙, 법적·법률적 권리(自力)화,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결정과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 완전한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됩니다.

억압적 정치체제, 법치의 부재,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의 경우 시민들은 참여를 두려워합니다. 이 경우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지역적·국가적 차원 또는 초국경적 차원의 지원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권도시 내의 연대 네트워크는 억압적 정치체제 제 하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여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학교, 도시 및 기관들 간의 모범관행을 공유하며 교환하는 것은 새롭게 설립된 인권도시들 내에서의 학습 및 교육 과정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인권교육과 인권을 도시로 통합하는 규정된 접근근법이 아직은 없으므로, 각 도시는 서로 공유한 경험과 모범관행을